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뉴욕 거장들'이 오는 7월 18일~10월 9일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열린다. 잭슨 폴록의 '수평적 구조'.

# 세계 미술계 흐름 이끈 '뉴욕의 거장들' 광주 온다

잭슨 폴록은 전후 회화에서 혁신적인 작가로 꼽힌다. 특히 '수평적 구조'는 2천여 이상의 평가를 받는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밝은 색채, 역동적인 페인팅의 에너지를 발하며 폴록 추상화의 정점에 이른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미술계에서는 '전후 미국 미술사조의 서정적인 상징'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잭슨 폴록의 '수평적 구조'를 비롯해 세계 미술계 트렌드를 이끈 뉴욕 거장들 작품이 광주에 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 ACC재단)은 뉴욕 유대인박물관 명작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공개하는 특별전을 연다. 오는 7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당(ACC) 문화창조원 복합 6관. (성인 1만3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1만원이며 30일까지 얼리버드 구매시 50% 할인혜택 제공된다. 전당재단 누리집 참조)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전시실에서는 추상표현주의 창시자 잭슨 폴록 외에도 색면 추상의 대가 마크 로스코, 개념미술 대표

## ACC재단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특별전 마크 로스코·솔 르윗 등 현대미술 거장 21명 작품 전시

작가 솔 르윗 등 현대미술 거장 21명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또한 미니멀리즘으로 일컫는 최소주의 조각가 리처드 세라, 현대 추상조각 선구자로 일컫는 프랭크 스텔라, '팝아트의 아버지' 제스퍼 존스 등 시대를 대표하는 뉴욕 거장들 작품도 포함돼 있다.

이들 작가 작품은 20세기 중반, 예술 중심지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방송인 전현무의 음성 해설 안내, AI를 활용해 거장들과 인터뷰를 영상으로 재현한 비디오프로젝트도 예정된다.

오재환 팀장은 "이번 작품은 1940년대~1970년대 미국 현대미술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걸작들로 구성돼 있다"며 "초창기 추상표현주의 초기작부터 세계 애호가들 사랑을 받았던 최소주의 작품까지 아우르고 있어 현대미술의 사조를 가늠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전시작 가운데 마크 로스코의 '십자가'는 종교적 주제와 추상적 표현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로스코는 1930년대 당시 유럽에서 일었던 파시즘에 대응해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창작했다.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파편화된 인물의 얼굴은 전쟁의 광기, 홀로코스트 비극 등을 은유한다. '십자가의 연작'은 지난 1942년 완료됐으며, 이번 전시에는 '십자가'의 마지막 인물화 가운데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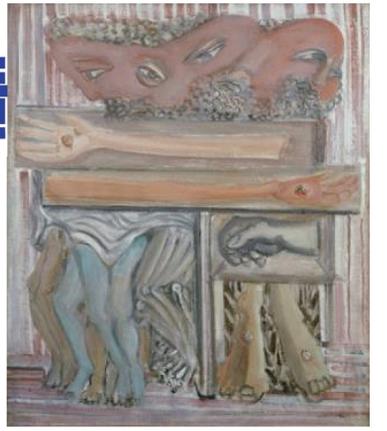
1950년대 뉴욕에서 활동했던 미리엄 사피로의 작품도 볼 수 있다. 당시 작가는 큰 캔버스에 강렬한 색채를 담은 작품을 그렸다. '팡파르'는 축제 분위기와 환상적인 이미지들로 관람객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일깨운다. 여성 작가인 사피르는 많은 이들과 교류를 했는데, 작품의 공예적 측면과 장식적 면에는 페미니즘적 의미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7월 18일~10월 9일 ACC 문화창조원

## 뉴욕의 거장들



미리엄 사피로 작 '팡파르'



마크 로스코 작 '십자가'

김 재단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뉴욕 거장들의 작품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들로 자유정신과 예술혼을 담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전지하며 문화를 꽃피운 광주에서 전시가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채송화 가족'

## 서정적 수채화 '물빛 향기'

김일심 개인전... 13~25일 보성아트홀

성큼 다가온 여름은 주위의 풍경을 바꿔놓는다. 물을 뿜어 올리는 분수대의 풍경이 시원스럽게 다가온다. 여름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맑고 투명한 물빛의 풍경이다.

수채화로 그려낸 그윽한 물빛의 향기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김일심 작가의 다섯 번째 개인전이 13일부터 25일까지 보성의 보성아트홀에서 펼쳐진다. '물빛 향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맑고 서정적인 수채화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 후 중학교 미술교사로 30여 년을 재직했다. 현재는 작가로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인연', '해님을 향한 기도', '오! 내 사랑은 고운 선술', '채송화 가족' 등은 감성적이다. 전시장에서는 학교 재직 시절 봤던 북내마을 주변 풍경을 비롯해 학생들의 모습, 보성의 풍광 등을 구현한 그림들을 볼 수 있다.

'인연'은 주암호 생태습지로 견학을 갔을 당

시 보았던 시든 연꽃잎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활짝 피었을 때는 더없이 순결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발하는 꽃이 연꽃이다.

작가는 내년에는 만개한 꽃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를 안고, 눈망울 초롱했던 아이들과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연'을 떠올렸다.

'채송화 가족'은 보는 자제만으로도 미소를 짓게 하는 그림이다. 빨강, 파랑, 노랑 등 다채로운 색상의 꽃들이 향아리에 군락을 이룬 모습은 아름답다기보다 예쁘다. 투명함, 순수함과 아울러 자연이 빛어내는 조화의 미는 자연이 베푸는 최고의 선물이자 가르침이다.

한편 김 작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길가의 풀, 꽃, 나무 등을 그렸다"며 "언제고 자연의 풍경에 빨강, 노랑, 파랑의 세상을 입혀 그것이 발하는 물빛의 세상을 구현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니밴드' 음악의 하늘을 향해하자

4인조 혼성 인디 밴드 광주 무대... 13일 카페뮤지엄CM

대만 투어를 성황리에 마치고 오는 8월 일본 오사카 무대를 앞둔 인디 밴드 고니밴드가 광주 관객과 만난다. 호남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4인조 혼성 밴드 고니밴드는 오는 13일 오후 8시 카페뮤지엄CM에서 열리는 'Friday Live in CM' 무대에 오른다.

고니밴드는 록 사운드를 중심으로한 개성있는 사운드로 주목받고 있다. '우아한 날갯짓으로 음악의 하늘을 향해하자'는 슬로건 아래 탄탄한 가창력과 진정성 있는 무대 에너지로 팬층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신곡 '진, 진'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감독 겸 작가 이동은과 만화가 정이용의 동명 소설을 모티브로 한 곡으로,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CM 음악감독 사군은 "고니밴드는 다양한 사운드 실험을 통해 자기 고백적이면서도 도발적인 매력을 지닌 팀"이라며 "이번 무대를 통해 그들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입장료 1만5000원, CM 전화예약.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고니밴드

<카페뮤지엄 CM 제공>

## 亞문화중심도시 문화콘텐츠 BM 발굴·육성

광주디자인진흥원, 미술·공예 등 5대 문화콘텐츠 8개 과제 지원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이 미술, 공예·디자인, 에듀테인먼트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 분야 BM(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 (BM 발굴 및 육성) 등에 팔을 걷었다.

디자인진흥원은 이 같은 'BM 발굴 및 육성'을 통해 8개 과제 사업화를 지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 지원은 미술, 공예·디자인, 에듀테인먼트 등 5대 문화콘텐츠와 관련 협업형 비즈니스모델 8개 과제가 대상이다. 지역 문화예술인 등 참여와 협업을 조건으로 모델 구체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사업을 지원하는 2단계에 접어들었다.

MZ세대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동명동 카페거리에 조성된 아트팝업스토어 '아르스디엠'은 (주)위치가스 제이프로코스(주), 지역작가 등과 협업으로 탄생했다. 이곳은 작품 전시는 물론 실감형 미디어아트, 지역 작가 작품을 모티브로 개발된 상품판매, 카페 등이 어우러진 오감체험형 문화복합공간이다.

시에는 무등아트협회 등과 함께 AI기술을 활용, 작품을 디지털 이미지로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디지털아트 플랫폼을 구축했다.

광주형 아트상품 개발, 사업화 부분도 있다. 푸른커뮤니케이션이 '광주 여반 스케치&드로잉' 소속 작가 20여 명과 함께 아트상품 개발을 추진했다. 작가들은 광주 풍경과 이야기를 담아내고, 푸른커뮤니케이션은 이를 토대로 컵, 엽서 등 100여 종의 아트상품을 출시했다.

에이앤즈 협동조합은 지역 공예인, 디자인기업 등과 K-공예 체험교육 상품을 개발, 프랑스 파리, 영국 레딩 등 한글학교 등에서 체험교육을 펼쳤다. 이밖에 ㈜기치같은 지역 문화작가들과 함께 카페와 서재, 문화상품 판매가 결합된 '벅스벅스' BM을 개발, 카페 2개소에 적용하는 등 북토크 행사를 열었다. 문화디자인은 지역 청년미술작가 온-오프라인 갤러리 구축 및 상품화, ㈜광지주는 광주 동명동 복합문화공간 아우르에서 미디어아트와



동명동 소재 아트 팝업스토어 '아르스디엠'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공연이 결합된 다인성 코스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이며, 보&봉은 청년 미술작가들과 아트콜라보 상품 개발 및 대형 유통업체 순회 전시판매전(7회)을 열었다.

김용모 원장은 "이번 협업 상생형 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지역 문화예술계에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며 문체부와 광주시가 지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